함께 W·i·t·h

Summer 만남

대전중부교회

함께 Summer W·i·t·h

COVER STORY

알 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옮겨가는 발걸음.
그 걸음마다 남겨놓는 숱한 만남들.
그리고 그 만남들로 인해 만들어가는 이야기.
'함께' 2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만남과 그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은 책자에 담아 놓은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성도와 세대와 지역과 교회를 잇는
소통의 씨앗으로 뿌려지길 소망한다.

Contents _ Summer 2010

· 목양실 러브레터 4

· 주제가 있는 특집 "만남"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6
이웃에서 교회까지 10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14

· 특집 "여름, 열정"

여름_ '뜨겁다, 그러나 시원했다' _ 유치부 18
_ 유 · 초등부 20
_ 중 · 고등부 22
_ 청년회 24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유년부 26
청년회 28
실버대학 30
베데스다 32
목장탐방 3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우리 삶의 터전 _ 비래동 38
늘사랑아동센터 40
신도시장 지킴이 42

18

24

48

50

함께 2 호 _ 여름호

발행일 : 2010년 8월 21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장 : 김용수
기자 : 배영미, 신신혜, 심재성, 윤여승, 이은영
조재란, 최정은
발행부서 : 문서홍보팀
디자인 : 한미영, 정아련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 622 · 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 지금 선교지에서는

태국 44
2010 단기선교 46

· 이런 일 저런 일

중부동산에 핀 이야기 꽃 48
전교인한마음수련회 52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단탐구 _ 통일교 54

· 중부 그루터기

옛날 옛적에 56
중부 Culture 58
전도수기 60
이 달의 전도 왕 · 전도우수목장 61
나의 삶, 나의 신앙 62
가정을 말한다 64
청소년 코드 읽기 66
사모의 글 68
새 얼굴 70
내 솜씨, 우리가족 71

"내가 좋아하는 말씀"

글 · 조상용 담임목사

오래 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진로를 결정하고 대입시험을 준비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그 학생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은 교회였다. 그래서 자신도 교회 목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성도님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결국 교회는 두 쪽이 나고 말았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도, 마음의 안식처도 아니었다.

학생은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 갑자기 앞에 있던 길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충격 속에, 고3이 되었다. 독서실에 앉아 책에 얼굴을 파묻고 공부에 열중했지만, 마음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그때 책꽂이에 세워둔 성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학생을 만나주셨다. 비전을 상실한 채,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커다랗게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5절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사명을 잊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일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셨다.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자!" 학생은 남이 들을 새라 꺼이꺼이 울음을 속으로 삭이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펼쳐진 성경 위에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세월이 흘러 그 학생은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지금도 요한복음 17장 4~5절의 말씀을 자주 애송한다. 목사가 된 후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으랴. 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어린 학생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사명감을 불태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소명의 고향'이다. *with*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교회만큼 다양한 사회가 존재할까?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개인적 성향 등등 어느 하나도 일치하는 분야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이 유일하다. 여기서 연령(세대)만 본다면, 이 역시 양 극단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소통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까? 원활한 수평적 소통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만남을 만든 이유다.

사회자 _ 김용수 편집장, **정리** _ 심재성 기자
때와 장소 _ 2010년 7월 4일(주일) 오후 2시, 목양실
참석자 _ 김규석 장로, 이후남 권사, 임인성 집사, 인창돈 형제, 이희주 자매

사회자 교회 연합이 개교회 중심 사역으로 무력화되면서, 개교회 내에도 세대별 수평적 만남은 자연스럽고 원활하지만 세대간의 소통은 이야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임인성 집사님부터 현재 자신의 세대가 교회에서 처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인성 교회에서 3,40대 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젊은 층에 들어갈 정도로 양적으로나 역할적으로 어려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위, 아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규석 장로

김규석 역사와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역사의 전통을 기반으로 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이 있고 지금도 그분들은 신앙의 지표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남 50대에 계신 여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셨고, 그러한 안정감으로 교회의 요소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드림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 주신 공동체에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희주 고등부 시기는 학교와는 달리 여러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신앙을 체험하게 해 주는 중요한 통로이며, 교회에서의 봉사와 만남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해 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창돈 전통 있는 교회에 속한 청년회는 결속력이 강하지만, 이것이 강점이자 단점이라고 봅니다. 청년부는 새로운 분들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교회의 씨앗이므로 바르게 교육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 생각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아가서 신앙적 근본을 바르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회자 이제 각자 세대의 입장에서 다른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만남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고등부는 아래의 중등부나 선배인 청년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희주 중등부와는 수련회 등에서 자주 대면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됩니다만 청년부와는 아쉽게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청년부나 고등부 모두의 무관심이나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입시를 앞둔 고등부의 특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창돈 제가 고등부 시절에는 우리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청년부를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부와의

문제는 소통이 부족했고, 청년부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하고, 모두가 청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잡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임인성 집사

임인성 장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장년들이 청년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부서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래에 속한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위에 계신 신앙의 선배들께는 옛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른 전통을 배우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장년의 입장에서 볼 때, 위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씀과 조언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될 때가 많이 있나요?

임인성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들 입장에서는 바른 것이라 생각하여 말씀하시고, 장년층에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될 때는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기보다는 유야무야 시간에 따라 소멸되는데 이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결론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후남 요즘 조상용 목사님 부임 후,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여성 성도들은 아기학교부터 실버대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졌으면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듯이 청년부와 장년의 마음도 리모델링 되었으면 합니다.

인창돈 형제

인창돈 청년부와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만남의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은 용기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적극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을 용기와 열정으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남 청년들만 먼저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장년들도 손을 내밀고, 청년들이 내민 손을 따듯하게 잡아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석 지금 우리 교회는 세대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노년층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권위적인 의식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도적인 제한이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리 교회는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세대 소통은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 해 봅시다.

≪ 이희주 자매

이희주 고등부는 중등부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하고, 청년부와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음수련회 등에서 각 부서별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나 아래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인성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여 가족을 뛰어 넘어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오후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규석 한마음수련회 등은 모든 세대가 만남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훈련은 계층별로 하지만 교제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인창돈 각 세대간에 겹쳐진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소통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누적되면 훈련된 자원이 많이 배출되어 소통이 건강해지고 커지리라 봅니다.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것이고, 이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 이후남 권사

이후남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훈련되면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재생산 되고, 이러한 재생산이 모든 세대에 이어지면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요즘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계층과 세대를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분리된 세대간의 모임이나 예배를 제도적으로 통합해 보는 시도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세대에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면 전 교회적으로 확대되리라 봅니다. 오늘 세대간 만남을 주제로 한 첫 시도가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with*

"이웃에서 교회까지"

〈함께〉 여름호 특집의 두 번째 '만남'은 교회와 지역의 소통을 위한 만남이었다. 우리 교회, 나아가 모든 교회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원만한 교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뜻 깊었던 좌담을 지상 소개한다.

사회자 _ 심재성 기자, **정리 _** 최정은 기자
때와 장소 _ 2010년 7월 16일, 필그림하우스
참석자 _ 조건수 회장 (가양 2동 통장협의회장)
홍명환 사무장 (가양2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조숙희 전도사, 윤종명 집사

1. 교회에서 지역으로

Q.사회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만남은 우리 교회와 지역의 소중한 첫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지역의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서로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숙희 현재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조상용 담임목사님의 큰 비전과 꿈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장학생 선발에 있어 그 범위와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카페 필그림하우스의 수익금을 전액 지역을 위해 환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김장나누기 행사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올 해는 그 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해 출범한 목장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이웃 독거노인 돕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과 조화로운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실버대학도 그러한 예의 하나입니다. 우리 이웃의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도와주고자 마련한 실버대학이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보람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홍명환 사무장

윤종명 집사

조숙희 전도사

조건수 회장

2. 지역에서 교회로

Q. 사회자 네. 이번에는 이러한 교회의 활동들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수 지난 연말 중부교회가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통장들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정말로 봉사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로서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홍명환 네,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느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지역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조직이 잘 꾸려져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그저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나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의 '복지만두레' 활동을 예로 들자면 이 조직 안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그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인가를 기획하는 운영위원회와 또 밑반찬 만들기, 독거노인과 야유회 가기 등의 구체적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보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자 네. 이번에는 교회의 지역과의 소통에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숙희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조건수 다른 것보다도 봉사활동 등을 핑계로 접근한 후 노골적으로 전도를 하고자 할 때는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것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봉사는 뒷전이고 전도가 앞선다면 일반인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환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종교적인 목적이 결부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띠지 말고 봉사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숙희 교회는 전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전도 수단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 그 감동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명 그렇죠. 우리 교회의 활동들은 이웃 섬김이 목적입니다. 이 필그림하우스만 해도 문화적인 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우리 교인뿐 아니라 모든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조건수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이 지역에 수 십 년을 살면서 이웃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참다운 기독교인은 솔직히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윤종명 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모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라는 것이지요.

조숙희 교회가 강조하는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실천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 행동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3. 교회와 지역이 함께

Q. 사회자 네, 지금까지 서로 간의 말씀들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교회와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얘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홍명환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시정설명회를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는 자치위원회나 기관장 모임에 목사님 등이 함께 하여 동 행정에 참여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발언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교회의 활동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연 지역을 위한 우리 교회의 활동은 몇 점인가? 자가 진단을 토대로 지역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 지역 봉사단을 구성하여 교회 주변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든지 하는 겁니다.

윤종명 좋은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한 만큼 동 자치위원회 등에 교회가 직접 참여하고, 또 봉사단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의 행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나서서 함께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동과 교회가 자주 만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고 그런 자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치위원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조숙희 교회 주변 청소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네요. 또한 동 자치위원회에 교회가 참여하는 문제는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4. 마무리하며

Q. 사회자 아쉽지만 이제 이 시간을 정리하며 각자 마무리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사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교회가 지역을 위해 진일보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건수 앞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하나 실천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명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서로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서로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러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숙희 이렇게 진지하고 뜻 깊은 시간을 통해 소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 앞으로 우리 지역에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의 이 시간이 앞으로 교회와 지역의 의미 있는 만남들이 더욱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with*

나의 목회인생 멘토들!

글 · 변두성 목사

내 삶에서 소중한 만남을 돌아보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다듬어지고 쓰임 받으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었던 '나의 목회인생 멘토들'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故 김종석 목사님(군산개복교회)은 영적 아버지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인생의 역할모델이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세상 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을 가르치고 도전하셨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후배 목회자에게까지 안수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모습은 겸손하셨던 목사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김영곤 목사님(서울행복한교회)은 영적 스승이다. 목사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셨다. 내가 영적 구도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면서 삶과 가르침 속에 역사와 시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오는 것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교회의 역사적 책임과 목회자의 시대적 책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흔적들일 것이다.

김종귀 목사님(전주제일교회)은 오랜 동안 故 김종석 목사님을 옆에 모셨던 분이다. 일반적으로 목회하면 그 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목회자가 놓치지 않고 갖추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행정이다. 목사님의 교회 행정에 대한 리얼 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는 목회자의 교회 경영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습을 겸한 최고의 수업시간이었다.

김승연 목사님(전주서문교회)은 독일 주재 선교사 출신으로서 쇠퇴와 몰락을 거듭하는 유럽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의 문제임을 몸으로 직접 깨닫고 한국 교회에 예배 회복의 경종을 울리면서 도전하고 있다. 또한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국 통일세대를 일깨우는 목회자로서 올바살운동(올바로 살기 운동)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한 넓은 통찰력을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상용 목사님(대전중부교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다듬어지는 과정에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목사님은 이처럼 중요한 가정을 교회 구성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의 목회인생을 통하여 만났던 멘토들에게서 배울 수 없었던 가장 기본적이지만 소중한 진리를 나는 목사님을 통해 지금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중이다.

이들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언급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된다. 그들을 포함한 나의 목회인생의 멘토들, 이분들은 나의 목회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없다. 이들의 목회에 대한 가르침이 바래지지 않고 올곧게 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준비된 목회를 위해 기도한다. *Soli Deo Gloria with*

우연히 만난 마음의 고향

글 · 이상우 집사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으로서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되찾은 것 같은, 시골 외가와도 같은 소중한 만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5년쯤 전 어느 가을날, 상주군 화남면의 한적한 시골 관광농원 겸 식당을 찾게 되었다. "아주머니 식사할 수 있나요?" "식사는 예약이 아니면 안되고, 이런 시골 외딴 곳까지 찾아왔는데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워낙 외딴 곳이라 사람이 그리웠던지 아주머니는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산골 삶에 얽힌 이야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재미있게 쏟아내셨다.

커피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토끼장, 닭장이 있는가 하면 텃밭에는 상추, 고추, 취나물, 무, 배추, 감자, 옥수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계곡에는 시원한 물이 졸졸 흐르고, 뽕나무, 구기자, 오가피 나무가 있고, 감나무에는 감이 노랗게 익어가고, 집 뒷편은 온통 구병산이, 앞쪽은 외속리산이 감싸고 있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시골의 외가와 너무도 닮은 그런 모습이었다. "아주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오세요. 사람이 그리워 죽겠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오히려 반문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농원은 짬만 나면 찾아가는 나만의 시골 고향, 마음 푸근한 외숙모가 있는 외갓집 같은 곳이 되었다. 갈 때 마다 아주머니는 채소며 산나물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차 트렁크 한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었다. 꼭 친정 어머니가 시집 멀리 간 딸에게 오랜만에 싸주시는 것처럼...

어느 겨울 날은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운전하여 농원에 도착하였다. 솔직히 겨울에는 갈 수 없는 곳이었다. 난로에는 장작이 퍽퍽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따뜻한 온기와 함께 차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끓고 있었다. "이 차 한 잔 드셔보세요. 관절염에 특히 좋은 구병산 겨우살이예요." "제가 나누어 드릴테니까 가서 한 번 보리차처럼 끓여 드세요." 처음 마셔보는 것이지만 차 맛은 가히 일품이었다. 창 밖에 내리는 보석과도 같은 흰 눈을 보며, 차와 곁들여 나온 군고구마와 감자를 먹고, 그날도 물론 아주머니의 재미있는 운전 경험담을 한참 들어야 했다. 소위『김여사』의 운전 에피소드를...

지금도 외가에 가고 싶을 때나, 도시화 되어 사라져 버린 시골의 옛 고향이 그리울 때면 찾곤 하는 "나만의 쉼터", "영원히 그대로였으면 하는 곳" 그런 소중한 만남이 있는 장소다. *with*

세상을 알게 하신 분,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글 · 이금자 권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만남에 관해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날까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중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따뜻해지는 이름, 그러나 한편 큰 아쉬움으로 남는 두 분이 기억났다.

먼저, 20대 후반 부산 대연동에서 살았을 당시 윗집에 사셨던 김광희 집사님! 김 집사님은 교직에 몸 담고 계셨던 선생님으로 가정과 교회생활에 충실하시고 이웃에 본이 되시는 참 좋으신 분이셨다. 어느 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상처를 묻어둔 채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오신 집사님께 연거푸 시련이 닥쳐 왔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실직! 그 동안의 인내와 희생의 결과치곤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모진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셨다. 유아원 교사생활 후 결혼을 해서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던 나는, 집사님을 통해 삶의 고단함과 암울한 현실 등 세상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꿋꿋이 극복해 나가는 인내와 용기도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챙기시고, 우리 부부를 친동기간같이 품어 주시던 분, 부산에 갈때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 안타깝게도 지금은 연락이 끊겨 만날 수 없지만, 집사님과 딸 정미, 아들 철진이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큰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김광희 집사님이 세상을 알게 하신 분이라면, 한준수 목사님은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10년이 지나도록 학습도 받지 않은 채 데면데면 신앙 생활을 해오던 나는 남편인 정권호 집사가 해외 파견근무를 나가게 된 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 남편은 매주 교회 앞으로 성도들께 안부 편지를 띄웠고, 목사님은 예배 중에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며, 기도와 격려로 우리 가정에 힘을 실어 주셨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슬하의 삼 남매와 교회 안에서 쌓은 수많은 추억들은 지금도 우리 두 딸이 종종 얘기 할 만큼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 1982년 목사님이 태국선교사 파송을 위해 훈련 받을 당시, 4일 밤낮을 함께 기도하다가 헤어질 때 두 분 눈에서 흘러 내리던 눈물은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

그리고 2008년 12월 6일, 하나님께선 대전 중부교회에 조상용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세우시는 만남을 주셨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신앙의 활력소를 공급받는 생동감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의 새 만남, 그리고 새 사람과의 만남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리라 확신 한다. *with*

오르간은 만남을 싣고

글 · 황인영 사모

성인이 되고 사회 속에서 많은 경험과 만남을 접하고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는 것, 특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야 말로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된다.

나는 어려서 피아노를 배우면서부터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고, 오르간을 접하면서 교회음악 오르간 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 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다. 유학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막상 정든 나라, 교회, 친구, 집을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떠나게 되자 낯선 세상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유학 준비과정을 늘 기도로 임해왔음에도 이제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예비하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다.

먼저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베를린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신앙생활과 학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셨고, 데트몰트 국립음대에 합격하게 하시되, 오르간 연주 대가인 게하르드 바인베르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과 기회를 허락하셨다. 선생님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좋은 결과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해 주셨다.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이었지만, 30명 정도의 작은 한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고 또,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단련 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기간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학 중에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며 친절했던 지금의 남편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주신 사람임을 확신했고, 감사함으로 교제를 시작해 아름다운 결실도 맺게 하셨다. 그렇게 6년 반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다시 본 교회의 반주를 맡게 되면서 고향 교회에 다시금 올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학교를 떠나서 나이를 들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 만남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주었듯이 앞으로도 좋은 만남들이 계속 되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뱃속에 새 생명을 만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with*

성령님, 내친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글 · 나은정 선생님(유치부)

지난 7월 24일과 25일 이틀 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중부교회 교육관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되었다. '성령님, 내 친구'라는 주제로 한여름 열기보다 더 뜨겁게 진행된 이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의 생생한 현장을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참여한 나은정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고자 한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교육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부장님의 광고로 여름이 왔음을 실감하며, 그렇게 여름성경학교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일을 핑계로 여름성경학교 준비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도우려는 열의도 없이 매 주일 교사 모임을 통하여 여름성경학교가 하루하루 준비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성경학교 첫째 날, 정성을 다하여 예쁘게 꾸며진 성전 안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절감했다. 그리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뒤늦게 서둘러 도울만한 일을 찾아 마무리를 하고 이미 와 있던 아이들과 오고 있는 아이들을 찬양으로 맞이했다. 마치 아무 공도 치루지 않고 다 차려 놓은 잔칫상을 제일 먼저 받은 얌체처럼!
순서 순서를 진행하는 데도 얼마나 열심히들 준비하셨는지 모든 순서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나갔다. 특히나 보조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이들과의 순서를 진행하면서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며 순서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준비해주고 치워 놓곤 하셨다.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둘째 날, 가끔씩 나오던 아이, 안 나오겠다고 선포했던 아이, 멀리 이사 간 아이들까지 우리 반에 차고 넘침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도 부모님과 아이들로 가득 채우시고, 찬양의 은혜와 기쁨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신 선생님들의 수고로 아름답게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 되었다.

앞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과 수고가 따르고, 잘해도 못해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싫은 내색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자신의 맡은 일들을 기도로, 봉사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신 선생님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또 나와 같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사람들까지 감싸 안으면서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해내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믿는다.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특히나 이번 성경학교를 잘 마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였던 '성령님이 내 친구' 이심이 가슴 깊이 새겨져 그 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길 기도한다. 아울러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with*

기도와 준비로 완성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글 · 안해경 집사(유년부 교사)

성령님은 내친구

이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매년 방학과 동시에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열어왔던 전례와 다르게 교회에서 개최한 '전교인한 마음수련회'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진행하게 된 터라 처음엔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모인 유초등부 학생들은 70여 명이나 되었고, '성령님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모든 학생들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분으로 인해 변화되며, 그 분과 함께 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2박 3일 동안 공과와 코너 학습을 통해 온전히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 교사로 여름성경학교에 세 번째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기도의 분량과는 무관하게 세 번 다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소통 없이 행사 준비하듯 했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만큼은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고, 강습회를 향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전 세계가 남아공을 주목하여 강습회당이 허무하게 비어 있을 때에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제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그저 주님의 슬픈 마음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여름성경학교가 준비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속에 시작된 여름성경학교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아이들도 교사들도 모두들 모처럼 집을 떠나 이루어진 성경학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임해 주었습니다. 한여름 더위는 어느새 잊은 채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한 모든 순서 순서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몸 속 깊이 확인함으로 느끼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포함하여 주님이 뜻하신 모든 일은 이미 성공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주님은 제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선포가 내 마음 속 닻이 되어 깊이 내려앉아 있기에 더 이상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일에만 선한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교사가 아닌 생활 속에서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도 저도 더 큰 은혜 받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with*

성숙한 열정을 피워낸

중·고등부 수련회

글 · 진봉덕 집사(중등부 교사)

"우리 교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훗날 이 아이들이 큰 결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10년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모여 수련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년처럼 기도회를 시작하고 선생님, 임원이 모두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해갔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교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도, 가끔 말은 잘 안 듣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이 또한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접곤 했습니다. 지금도 내 아들 딸 또는 조카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것이 나뿐 아니라 모든 나이 든 교사들의 심정이리라 봅니다. 전도사님도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막 우실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아도 민망할 때가 있을 정도로 좀 극성(?)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랍니다.

중등부의 경우 지난해 출석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올해는 모든 선생님들이 비장한 각오와 기도로 전도하며 학생들과 연합하여 지금은 평균 7,8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5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기쁨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버스 한 대로도 충분한데 우리 부서는 두 대에 나누어 이동을 하고 있으니 시작부터 신나는 수련회가 된 거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고 풍성한 수련회를 시작하게 해주니 말입니다.

드디어 첫째 날, 아이들이 자연학습장에 도착하여 순서에 따라 조를 나누고 잠 잘 방을 정해주고 하는데, 교사들의 지도 뿐 아니라 또래인 조장들의 말을 잘 따라주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식사를 잘 마친 후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잘 왔다. 이렇게 좋은 수련회를 못 온 아이들이 안타깝다'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끝이 나서도 피곤해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보며 역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대단하구나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피곤한 몸이지만 일찍이 일어나서 어설픈 체조와 그 하기 싫어하는 성경암송을 할 때에 그래도 몇 명 아이들을 빼고는 잘 순종하고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공동체 게임을 할 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면서 일등을 하겠다고 조원들을 서로 챙기는 모습이며 또 그런 중에 질서 유지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또한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후 시간에 교사들이 아이들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교사들 몇이 본인이 맡은 아이들을 보려고 대전에서 그곳 자연학습장까지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향한 우리 교사들의 큰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고등부가 있는 우리 중부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훗날 이 아이들이 큰 결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고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끝까지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의 수고와 땀방울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올해의 성공적인 수련회의 결과로 내년의 수련회를 더 기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ith*

하나님의 나라를

Proclaim!
The kingdom of God

선포하라!

다물도에서 만난 기드온의 300용사

글 · 김요한(청년회 회장)

우리 청년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다물도교회로 국내단기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도배, 한방의료, 보일러수리, 헤어커트 및 파마 등 총 7개 팀으로 나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저는 도배팀 팀장을 맡아 다섯명의 팀원들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배를 시작할 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모두들 도배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께서 집에서 도배하실 때 잠깐 도와드렸던 것 말고는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갔던 태환이가 흑산도로 떠나는 날 아침, 인터넷에서 꿀 같은 지식을 얻어 온 덕에 풀 배합은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은 잘 만들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도배지를 바르고 붙일 때마다 벽지가 우릴 보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달래 보아도 참 슬프게 울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왔는데 도리어 피해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주신 덕분일까요? 드디어 한쪽 벽면을 다 바르고 나니 제법 그럴 듯했습니다. 울었던 벽면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우릴 보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교 일정 내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전도 집회 시간에는 선교팀원 모두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7시에 시작하기로 한 전도 집회에 모인 인원은 총 세 분... 막막했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했던 집회이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 좋은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될 때까지도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와 계셨던 세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 영화의 감독이신가 봅니다. 설교 도중 누군가에 의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문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곤 일제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문가에는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시려고 줄을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가히 기드온의 300 용사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파마를 하신 리더 할머니를 주축으로 자칭 삼총사라 부르시는 세 분의 할머니께서는 찬양하는 동안 흥에 겨우셨는지 '예수님이 좋은 걸'의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습니다. 선교팀이 준비한 먹을거리를 나누는 마지막 일정까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은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를 주관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체험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선교 사역의 피드백을 하면서 팀원들 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간증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다물도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까맣게 타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에 놀라우신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까맣게 타버린 피부보다 더 진하게 우리 가슴 안에 물들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with*

I ♥ Jesus... 유년부

글 · 채세광 강도사(전 유년부 담당)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만세~!!!", "성경아, 사랑해!!!", "복음은 내꺼야!!!",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요",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대전중부교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유년부 표어입니다. 제가 대전중부교회 유년부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나갑니다. 언젠가 한번 저와같이 4년동안 연속으로 유년부 부장으로 수고하신 안중근 부감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중부교회 유년부에서 사역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훌쩍 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정말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한 해와 중부교회 유년부 교육 전도사로 부임한 해가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유년부에는 저의 처음 사역 때부터 함께 하시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새롭게 유년부 교사로 자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유년부 선생님들을 볼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많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유년부 교사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유년부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주저없이 유년부와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유년부에는 6개의 팀이 있습니다. 각 팀에는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우선, 부장님을 비롯하여, 부감,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 선생님으로 구성된 총무팀이 있습니다. 이종란 부장님은 오랫동안 유년부 부서기로 섬겨오셨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의 문제를 파악하셔서 선생님들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도록 조율하시는데 힘을 쏟고 계십니다. 안중근 부감님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유년부 부장으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부감의 위치에서 부장님을 도와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회계로 섬기시는 최영란 선생님은 오랫동안 유년부 서기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회계로 유년부 재정과 간식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부회계로 섬기시는 국은희 선생님은 직장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유년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쓰십니다. 서기로 섬기시는 이혜실 선생님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유년부에서 뵈었지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부서기이신 김지윤 선생님은 지난해까지 반을 맡는 교사로 섬기시다가, 올해는 베데스다 반주와 부서기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주로 섬기는 박상규 선생님과 고3 수험생이지만 비상 상황을 위해 항시 대기중인 박민지 선생님도 있습니다.

교육기획팀은 유년부의 교육과 성경고사, 양육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김현영 사모님께서 팀장으로 섬겨주시고, 유년부 교육 관련 행사와, 노회 성경 골든벨, 성경고사를 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류미선 선생님께서 성경 고사를 위해 예배 후 매주 유년부 공과를 가지고, 성경고사를 자원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 · 전도팀은 유년부 예배, 교사, 어린이, 가족,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홀수 토요일마다 동대전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주도하는 팀입니다. 구왕성 선생님께서 팀장으로 섬겨주시고, 기도 · 전도에 모범을 보이시는 이종옥, 최재심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협력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봉사팀은 서영순 선생님이 팀장으로 섬겨주십니다. 봉사팀은 유년부 교사 행사나 어린이 행사시에 필요한 부수적인 물품들이나 식사 관련 사항을 섬겨주십니다. 봉사팀 선생님들은 언제나 말이 없이 조용한 부분에서 성실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봉사팀으로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 · 율동 행사팀은 유년부 예배 찬양 · 율동, 생일파티, 레크레이션과 관련된 사항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안중근 부감 선생님을 팀장으로 찬양 · 율동 지도는 한미례 선생님, 이벤트 지도는 안중근 부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양 · 율동 행사팀은 유년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팀은 유년부 예배실 장식과 관련된 팀입니다. 서진아 선생님을 팀장으로 게시판을 꾸미거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교육하기 위한 문구를 장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년부 선생님 한분 한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대표되는 분들만 소개해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유년부는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은 젊은 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젊은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유년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올해도 각각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땀과 눈물과 기도와 열정, 그리고 정성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with*

늘푸른 젊음을 가진 청년회

글 · 김 정(청년회 문화국장)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처럼, 뜨거운 젊음이 넘치는 늘 푸른 청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늘 푸른 청년회는 '코람데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2010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회에는 20세 이상부터 결혼 전까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길과 삶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크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영훈 전도사님은 별명답게 좀처럼 웃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내 단기선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다는 소문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영훈 전도사님이 청년들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 설교자로써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카리스마입니다. 열정적인 말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은 매 순간 도전 받고 있습니다.
부장 집사님으로 계신 김근홍 집사님께서는 청년회에 없어선 안 될 아버지와 같으신 존재이십니다. 한편으론 키다리 아저씨와 같이 묵묵히 뒤에서 청년들이 하는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섬김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듯이 청년들은 교회 각 부서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회의 예배는 특성별로 조직된 국들을 중심으로 준비되어집니다. 문서국은 청년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주보를 준비하며, 토요일 저녁에는 찬양국이 모여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 준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국장을 중심으로 1시간 정도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국에서는 자막 등 방송 장비를 통해 예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청년들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넘어 중부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는 제자반이 있습니다. 정영훈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제자반은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적 지식만을 쌓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영

적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하우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의 참된 교제는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청년회는 이 소그룹의 이름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11명의 목장지기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모여 하나의 목장을 이룹니다. 리더들은 모임 안에서 성경적 교제를 나누고, 목원들을 돌봄으로써 세상 속에 지친 청년들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청년회만의 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30기 새내기부터 20기 이상까지 나이별로 각각의 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수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회에서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부의 가장 큰 장점은 선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매년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국외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국내 단기선교를 다녀옴으로 국외로만 국한되었던 선교의 지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부교회 안의 수많은 성도님께 사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회의 매 사역마다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해주시는 성도 분들께서 계신다는 것은 청년회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의 청년회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푸르름을 간직한 청년회, 독수리 날개 쳐 하늘로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동행 하는 청년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with*

Silver

실버를 넘어 젊음으로 물들어 가는 실버대학

글 · 신신혜 기자

작년 가을에 처음 개강한 실버대학은 올 상반기까지 두번의 학기를 마쳤다.

가을학기를 앞 두고 실버대학 여러 학과는 더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담당 교역자 정진숙 전도사님과 함께 또 한 번의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안다. 실버대학에는 여러 학과가 있는데 그 중 종이접기과가 다른 학과와 더불어 인기있는 학과이다. 65세 이상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종이접기를 하고 계실 때 보면 표정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보는 이들도 더불어 행복해진다.

최미자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이 종이접기과에 계시는데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시다. 필그림하우스 카페에도 종이접기과의 손때가 묻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장식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가 있다. 어찌나 손끝이 야무지게 만드셨는지 처음 그 작품들을 보았을 때는 종이로 접어서 만들었다고 생각도 못했을 정도이다.

이 번 봄 학기 때 일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평화의 방에 종이접기과가 수업을 한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어찌나 즐겁게 종이를 접고 계시는지 한참을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네모의 종이가 세모가 되고 세모가 다시금 여러 모양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무슨 모양이 될지, 어떤 작품이 태어날지 궁금함으로 한참을 보게 된다. 여기 저기서 종이가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내 손도 어느 새 그 접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다.

꽃 한 송이씩 피어나는 걸 보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그 미소는 흡사 소녀들의 수줍은 미소를 보는 듯 했다. 이처럼 종이접기와 더불어 여러 학과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한 과목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실버의 꿈을 키워나가신다. 나이가 들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접으시고 하고 싶으셨던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고 만들어 가는 곳.

하얀머리 어르신들의 미소가 더 없는 젊음으로 물들어가는 곳.

그 분들이 목요일이면 향하시는 곳.

바로 대전중부교회의 실버대학이다.

또한 목요일이면 노란 조끼를 입고 봉사하시는 여러 집사님들과 청년부의 청년들 그분들이 있어 실버대학의 여러 학과는 체계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노란 조끼 봉사자님들이 있어 실버대학은 더 따뜻한 곳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강의를 해 주시는 여러 강사님들.

그 분들의 열정이 실버대학의 여러 곳을 열려지게 하고 있다. 새롭게 개강하는 가을학기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실버대학을 통해 그 분들만의 멋있고 아름다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권면한다.

하나님께서 총장을 맡아주시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섬김과 봉사로 교수의 역할과 도우미의 손길을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학!

바로 대전중부교회 실버대학이다. *with*

베데스다

글 · 배영미 기자

주일 10시 50분, 지하 소망의 방에서는 베데스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30대 청년부터 70~80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약 70여명 모여있지만 대다수가 노인들 이었다.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에 이어 그 자리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둥그렇게 앉아 식사를 하셨다. 오늘 메뉴는 밥과 된장국, 김, 마른새우볶음, 김치였다. 다들 남기는 것 없이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는데 손에 봉투가 하나씩 들려있다. 바로 교회에서 교통비로 지원하는 후원금이다.

베데스다 예배의 시작

언제부턴가 10여 명의 노숙자들이 식사와 쉼을 얻기 위해 교회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어 돌려보냈으나 한 두 번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었다. 결국 1996년 전도와 구제 차원에서 그들을 끌어 안기로 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교통비 5000원과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600원이었으니 5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고, 이내 소문이 퍼져 40~50명의 노숙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다 1997년 12월, 국내외한 위기 상황의 초래로 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바로 'IMF한파'였다. 그 시기엔 평균 16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부분이 실직자요 노숙자였다.

베데스다 예배의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70명 전후다. IMF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의 증대로 실직자들이 직장을 찾아 떠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베데스다 예배 실태 변화는 참석인원의 변동만은 아니었다. 연령에도 변화가 많았는데 당시 30~40대의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이었다면 현재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참석자의 15% 정도만이 실직, 노숙자이고 나머지는 독거노인이나 거주지는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극빈곤층인 것이다. 인원과 연령, 계층의 변화 즉, 초기와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변한 것이다.

반면 인원의 감소 요인을 교인들의 무관심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초기 몇 년은 겨울점퍼, 내복, 간식, 찬조금 등 교인들의 관심과 후원들이 많았지만, 점차 후원의 손길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다시 2000원으로 줄여지다 보니, 왕복 차비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베데스다 예배에서 만난 분들

김봉수 성도

김봉수 성도

예배 중에 유독 노신사 한 분이 눈에 띄었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개인 성경을 펼쳐놓고, 헌금을 드리며 예배하시는 김봉수(84세)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두분의 아들이 있지만 자녀들의 부양 없이 목동 단칸방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독거노인이시다. 35살 때, 동네 교회 권태일 장로의 포기하지 않는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셨다.

"권 장로가 교회에 오라고 하길래 내가 때려줬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자꾸 전도를 하는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마다 때렸지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눈만 감으면 권 장로의 손과 얼굴이 자꾸 보여 일주일을 잠을 못 자겠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열흘째에 목사님께 가서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면 교회 나오겠다고 했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날부터 잘 자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엔 감리교회에서 권사 임직도 받았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3년째라는 할아버지는 11시 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2000원 이라도 받아야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 사실 서류상 부양 의무자가 있는 관계로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이면 시간대 별로 몇 교회를 더 가신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십일조나 감사헌금은 못 드리더라도 부족하지만 주일헌금은 꼭 드린다는 할아버지는 "좋은 옷은 아니지만 주일날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깐 예를 갖추기 위해 꼭 양복을 입어요."라며 옷 매무새를 다듬으셨다.

이현숙 성도

이현숙 성도

이현숙(45세)씨와의 인터뷰와 동행취재를 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긋나고, 못 만나기를 몇 차례, 너무 어렵게 만난 그녀의 첫 인상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빠진 앞니 때문인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그래도 활짝 웃으며 맞아주는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하나 둘 드러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자식 없는 8년의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을 했지만, 새로 시작된 삶 역시 평탄하지는 않았다.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 일을 전전하다, 지금의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 가끔 가사를 도와 주는 조건으로 방 한 칸을 빌려 쓰게 되었다. 아침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라면으로 때우고, 점심과 가끔 먹는 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한다.

이제 겨우 편히 누울 방 한 칸 구했나 싶더니, 작년엔 유방암 선고를 받고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됐으며, 수술 후유증인지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어 눈 수술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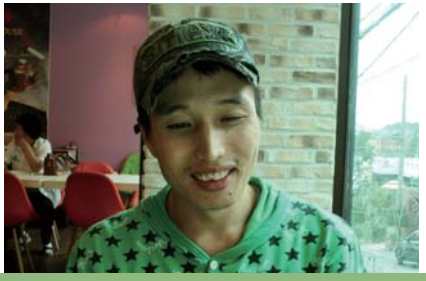
"집사님! 나도 예전엔 예쁘단 소리 좀 들었어요." 렌즈 가운데가 돋보기라 눈이 다소 커 보이는 안경을 벗으니 쌍꺼풀이 또렷한 예쁜 눈이 보인다. "이 안경을 벗으면 그나마도 안 보여요."

그 날도 눈앞의 계단을 못 본 채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 했고, 평지에서도 조심조심 불안하게 걷고 있었다. 유방암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은 덕에 다행히 수술비용은 지원을 받았지만, 눈 수술은 자기 부담금이 꽤 많았다. 그 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1차 수술을 하고 나니, 2차 수술 비용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작고 왜소한 어깨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삶의 무게들이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 베데스다 예배에 나온 지 일 년이 채 못됐다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은 처음보다 표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최영덕 형제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계획하거나 행동에 옮겨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볼 때면 위안을 갖게 됩니다."

4년여 전부터 주변의 아는 분을 통하여 베데스다 예배에 참석하게 된 최영덕(32세)



최영덕 형제

씨, 베데스다 예배 참석자 중에서 가장 젊은 그와 필그림에서 잠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영덕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고, 큰 댁에서 지내 던 중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니게 되었지만, 이도 여의치 않아서 중퇴를 하고 형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공사장 막노동, 택배회사에서 심야 업무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해 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의 작은 교회를 잠깐 다녀 본 것이 전부인 영덕씨의 신앙생활은 의외로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 예배를 접하면서 다시 시작 되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며, 정기적인 수입 없이 일당에 의존하는 생활은 영덕씨의 생활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20대 이후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삶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방향을 일깨워 준 이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단한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받고 교회를 나서게 되었고, 매 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베데스다 예배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지만, 요즘은 봉사자와 함께 식판도 나르고 자기 역할을 찾아 본다. 영덕씨는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작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베데스다 예배의 나아갈 방향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베데스다에서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예배를 노숙자 예배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앞에 소개한 세 분이 그렇듯,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대전 중부교회의 성도 인 것이다. 다만, 가족이나 사회, 정부의 보호와 책임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요, 교회가 돌봐야 할 우리의 연약한 지체이다. 이제, 책임과 의무감으로 한 발치 거리를 둔 채 그들을 대하고, 악취에 인상 찌푸리며 지나쳤던 부끄러운 모습을 자성할 때가 아닌가 싶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판단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리라.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최영일 장로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대신하고자 한다.

“베데스다 예배에 오신 분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 품으로 뛰어든 우리의 태신자가 영적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홀로서기 할 때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끝까지 책임집시다.” *with*

목장탐방(여):
2교구 가양12목장

글 · 조재란 기자

"각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으로
한 목장이 되어
살아있는 셀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서로 맘껏 웃어 주었고
상처의 고백들을 할 때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진정한 수다사역이란 바로 이런 것!!^^

토요일 오후! 그 유명한 필그림 카페에서 아리따운 여인네들이 만났다. 목장모임을 위해 가양12목장의 목원들이 모인 것인데 목원들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까닭에 토요일에 목장예배를 드린다. 마침 오늘 식당봉사 순서여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카페에서 목장모임을 하고 있었다.

목원을 소개하자면,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목자 이종덕 집사님, 탁월한 손맛으로 식당(토종 왕 순대)을 운영하시는 김정윤 집사님, 소녀 같은 감성으로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 김정식 집사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동구의 큰 손 김인숙 집사님, 중국으로 이민을 다녀오면서 우리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굳이(?) 가양동을 다시 선택한 손용희 집사님, 작년에 등록한 따끈따끈한 새신자이지만 목장예배 출석률 1위인 김혜숙 성도님,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시지만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다.

마음열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하 호호 까르르 웃다가, 사뭇 진지해 지다가,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다가... 가양12목장이 목장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서로 맘껏 웃어 주었고 상처의 고백들을 할 때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체험과 간증을 이야기 할 때는 함께 충만해짐이 보였다.

어쩌면 그리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던지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을 때쯤 휴대폰 벨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한다.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과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는 모양이다. 그제서야 모두들 시계를 보고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그새 두 시간이 지났네!”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마침기도를 하고 헤어진다. 아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한 두 시간은 더 이야기를 할 기세다.

이 목장은 항상 이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눔을 했다고 한다. 각자 삶의 색깔은 다르지만 목장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이야기하며,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목원들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아 서로를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어 견고한 믿음의 관계들이 되었고,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내 집 식구를 만난 듯이 각별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함으로 두 세 시간을 수다 떠는 이 여인네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다 사역(!)이 아닐까? *with*

우리 삶의 터전 비래동

글 · 심재성 기자

우리 교회의 소재지인 가양2동 못지않게 우리 교회와 친숙한 관계에 있는 동이 있다면 바로 비래동일 것이다. 비래동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동 중 하나임은 물론이고 교회와 가장 인접한 동네이기 때문이다. 이번 '함께' 여름호에서는 우리의 친숙한 이웃 비래동을 소개한다.

비래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으로, 마을 북동쪽 골짜기에 비래암이 일찍부터 있어 마을 이름을 비래리라 한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이 곳에는 옛날부터 비럭골, 새터, 댕이 등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마을 전체가 동서로 크게 양분되었다.

고속도로 동쪽 지역인 비래본동은 처음 비래동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세월이 흘러 생겨난 이웃 마을과 구분하기 위하여 원래의 비래마을이란 의미로 원비래 또는 비래본동으로 부르게 되었고,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비래골로도 불리다 그 음이 변하여 비럭골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500여 년 고성 이씨 집성촌이 유지되고 있는 등 옛날의 모습을 많이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고속도로 서쪽은 도시화되어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번화한 비래동 지역이다. 옛날에 원비래에서 분촌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 혹은 새터로 불리던 지역은 지금 금성백조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지금의 가양공원 입구 쪽 마을이었던 대양리 혹은 댕이 지역이라 불리던 지역은 현대, 삼호, 삼익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비래동의 지명 중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북쪽에 있는 '길치고개'는 고개가 길다 하여 길치고개, 땅이 질퍽거리는 고개라 하여 질티고개라 부르며, 그 골짜기는 길치골, 길티골이라 부른다. 또 원비래 동쪽 뒤편에 있는 산 이름이 '백두산'인데 마을에서 바라보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도 거창한 '백두산'이라 한다.

비래동은 가까이에 계족산 줄기와 대청호 등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어느새 청정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교통 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가 인접하여 타지에서의 접근성이 수월할 뿐 아니라 구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옥천 방면, 최근 개통된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동구 판암동, 금산 방면 등으로 더욱 쉽게 오고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으며,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고 있음은 물론, 교통까지 편리한 비래동은 대전 시민의 넉넉한 삶의 터전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비래동이 언제나 따뜻한 삶의 향기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곳곳에 흘러넘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길 또한 소망해 본다. *with*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연 늘사랑아동센터

글 · 조재란 기자

늦은 오후 늘사랑 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앞마당이 파헤쳐져 있고 여기저기 흙더미가 수북이 쌓여져 있었다. 방문 허락을 받기 위해 두어 번 통화 한 적이 있는 사무국장님을 찾으니 마당 한켠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안내를 한다. 조금은 심란하고 의아한 생각에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정혜원 사무국장께서 밝은 미소로 맞으시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늘사랑 아동센터 주변이 개발지역이 되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에 아동센터의 앞마당과 건물이 포함이 되어 헐리었다고 한다. 십수 년 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던 마당도 파헤쳐 져 이제는 흙더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다. “해당구청에 찾아가 사정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우리 힘이 부족한가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여건과 장소를 준비하셨겠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신다.

늘사랑 아동센터는 1953년 제1대 원장이신 故정원근 목사님께서 미감아(나병환자의 자녀)들과 전쟁고아를 위하여 피얼스 애육원이란 명칭으로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금자리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현재는 모두 53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다. 22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계시고 아이들과의 호칭은 서로 엄마와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 보호의 차원을 넘어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고 맑았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필요 이상으로 동정만하거나 아니면 소외를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몸이 아픈 상태로 들어온 아이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해 졌을 때와 부모님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고

한다.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편견없이 품어주어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한 부모 가정이 자녀를 잘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버려지거나 이별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소망한다며 사무국장님은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신지도 20여년이 지났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만나고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하다가 다시 부모에게 보냈던 추억들을 얘기하시며, 내내 눈망울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연으로 인해 만난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과 눈물로 품고 양육하는 엄마들이 있기에 늘사랑 아동센터의 아들, 딸들은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같이 웃을 수 있다. 늘사랑 아동센터는 새 건물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벽돌 한 장의 후원이 간절히 필요하다. *with*

— 늘사랑 아동센터 전화 042) 634-0061

신도시장지킴이

수정정육점

글 · 신신혜 기자

하늘이 참 맑은 날이었다. 교회를 나와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그 중턱에 신도맨션이 있다. 양쪽으로 펼쳐진 오래 된 은행나무며 플라타너스가 여느 날보다 더 푸르게 다가왔다. 그 나무들 사이로 난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신도시장이 있다. 신도맨션이 생기면서 그 아래로 시장이 조성되었는데 그 시장이 바로 신도시장인 것이다. 처음 시장이 생겼을 때는 몇 안 되는 가게가 있었다고 한다. 과일 가게 야채가게 등 4개 정도의 점포가 다였다고 한다. 그 중 수정정육점이 창단 점포였는데 이 번 신도시장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이 수정정육점을 방문했다. 처음 발 걸음을 하여 찾은 곳이 바로 수정정육점인데 여느 가게의 간판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다. 간판만 보더라도 그 가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곳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정겨움마저 느껴지는 간판아래로 진열장이 보였다. 그 또한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정육점 주인은 연세가 지긋할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장님은 뜻밖에도 여자 분이셨고 젊은 분이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웃으시는 모습이 ‘예쁘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고우신 분이었다. 신도시장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고 오래 된 가게를 찾고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이 곳 수정정육점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니 사장님께서는 그러냐며 허물없이 대해주셨다.

“어머 어떻게 해요. 뭘 말해야 하나…”

하시면서 고우신 미소만 보이셨다. 정육점을 한지 18년이 되었고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으며 생활에 어려움없이 살아왔다는 사장님. 오십이 훨씬 지난 나이임에도 젊어보이는 이유는 마음에 항상 부족한 것 보다는 채워져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딸 아이는 대학생이라고 하시는 고우신 사장님. 정육점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를 안 했으며 이 정육점을 통해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했다는, 욕심없는 후덕하신 마음이 좋아보였다. 신도시장은 또 하나의 사장님의 값진 인생이라고 하신다.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서 신도시장의 정감이 넘쳐남을 보았다.

생선백화점

신도시장 가운데 사거리라 불리는 곳, 이 곳이 바로
'생선백화점'이 있는 곳이다. 가양동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생선백화점을 모르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가양동에
살면서 항상 보는 가게라고 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가게는 언제나
밝은 불빛 아래에 싱싱한 생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냥 지나치다가도 고개를 돌려 보게 되는 곳.
이 생선백화점을 운영하는 분이 바로 백호진님이다.
형제가 함께 하는 생선가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형제분은 언제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여느 다른 가게보다
제일 먼저 나와 준비를 한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이 분들에겐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한다.
형 백호진님은 신도시장 상인회의 총무이기도 하다.
상인회 총무이기에 여느 다른 회원들 보다
시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상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한다.
상인회가 생기면서 신도시장은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상인들간의 친목도 남다름을 자랑한다. 서로의 기쁨도 서로의 아픔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도시장내 상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상인회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며 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물건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시장으
로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 모든게 다 고마움이라고 한다.
오늘도 생선백화점은 다른 가게의 문이 열리기 전 싱싱한 생선을
진열장에 올리기 위해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형제의 땀방울 맺힌 미소 뒤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한 번 신도시장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 곳에 있는 생선백화점에서 형제의 웃음만큼이나 싱싱한 생선을
사러가면 어떨까 한다. *with*

신도시장지킴이

해외선교의 뿌리 태국

글 · 윤명호 선교사

태 · 국 · 선 · 교

1828년 최초의 복음이 전래된 이후 180여년의 긴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다. 현재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전도와 교회 성장에 대한 강조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요즈음 태국 내에는 산족사이에서 부흥의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을 단위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하다. 태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1956년) 한국인 선교사 파송지로 시니어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지이다. 주변 동남아국가와 서남아시아, 중동지역 선교의 교두보와 교량역할이 증대 되고 있다.

대전중부교회도 1990년 태국에 김정배목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태국선교에 합류하였다. 1993년 김정배선교사가 싱가폴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는 1995년부터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교를 해오다가 2000년도에 윤명호목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_ CPM선교부(Church Planting Mission, 교회설립선교회, 1996년 대전중부교회에서 발족)

태국의 수도 방콕에 '마하나컨'교회를 중심으로 (6,600만 태국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주제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여, 그들을 고향과 출신지 등 연고지에 파송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형태로, 태국 전역을 복음화 시킨다는 것이 선교부의 목표이다.

2 _섬기는 사역과 현황

1 마하나컨 교회

2003년 6월 설립.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일대일 양육 등으로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토요학교와 클렁깔란딴학교 등의 사역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 클렁깔란딴 학교

방콕 '마하나컨' 교회 인근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매주 목요일 오전 3시간 기독교 과목 지도

3 쑥쌈란 교회

쑥쌈란마을과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나라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렁전도사 혼자 피아노, 영어, 컴퓨터 등을 가르치며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사역에 동역할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4 뽕두 교회

2007년 7, 8월에 단기선교팀들의 방문으로 주민들과 인근 뽕두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열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여 왔고,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인식한 울산명성교회의 후원으로 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집회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설립 예배를 드렸다.

3 _ 태국기독공직자군인경찰회 사역(회장/육군소장 차야껀 장로)

태국기독공직자군인경찰회의 사역은 태국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공직자사회의 복음화와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태국의 기독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지도자들의 복음화와 태국전역에 흩어져 외롭게 사역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태 · 국 · 선 · 교 · 의 · 중 · 요 · 성

태국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한나라를 지나 국경이 맞닿는 나라들을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50%를 상회하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박해국가들이다. 태국은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주변 나라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기독교가 든든히 서야한다.

태 · 국 · 선 · 교 · 의 · 비 · 전

6,600만의 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국전역 3만여 리, 동 마을에 (불교 사찰 수와 같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자 비전이다.

1 CPM 선교부 사역의 확대로 교회 개척 활성화
2 태국 기독교 공직자회의 사역의 활성화
3 한국내 태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태국출신 한국인에게 전도사역 *with*

싱가포르, 태국
새로운 각오로 열정을 피워낸다

글 · 청년팀장 전혁수 형제

2010년 싱가포르, 태국 단기 팀을 이끌면서 한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부담감은 우리교회에서 중단된 태국 단기선교를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집부터 열심히 청년들에게 장려하며 모집을 하였고 11명의 청년과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으로 구성이 된 싱태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및 청년회 행사를 치루면서 단기팀 연습까지 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됐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나게 된 단기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팀을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단기선교 기간인 10일 동안 팀 안에 사건 사고가 없던 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팀 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보다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더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 46:10)"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금년 단기선교에 대한 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쓰임만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단기 선교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 지상 명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 지기를 원합니다. *with*

몽골,
미지의 땅에 씨앗이 되어

글 · 청년팀장 박종민 형제

이번이 4번째가 되는 몽골 단기선교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좀 가지 왜 4번씩이나 같은 곳을 가냐' 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가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몽골' 이라고 하면 다들 못살고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곳은 이미 구원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열망과 열기가 끓어 오르고 있다. 처음 갔을때도 느낀 것 이지만 믿음의 선배로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오히려 단기팀들이 더욱더 배우고 오는 선교가 되는 것 같다.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을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때 묻지 않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곤 한다.

이번 선교 또한 정말 팀원들과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열정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재정 및 팀내 갈등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 비록 짧은 일정으로 복음의 씨앗에 대한 열매는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주님의 향기를 '몽골' 전역에 전하고 왔고 이후의 열매 또한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다녀온 모든 팀원에게 이번 단기선교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 가 되었으면 한다. 좀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며 지켜봤으면 한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해 보며 안전하게 선교를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린다. *with*

중부동산에 핀 이야기 꽃

선교 바자회

올해에도 어김없이 선교바자회가 열렸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남녀전도회, 청년부, 특별기관 등에서 국내, 해외선교를 지원하기위한 선교바자 대잔치였다. 각 지역의 특산물, 전도회 회원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식품류 등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중부교우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이웃잔치가 되었다. 총 수익금은 860여만 원이었으며, 선교지경을 넓히는데 짜임새 있게 활용되었다.

즐거움이 가득한 선교 바자회

가족 찬양대회

5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뜻 깊은 찬양대회가 열렸다.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찬양축제에 모두 9가정이 참석하여 열심히 준비한 대로 축제를 벌였다. 박양금 권사와 이정학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대회는 김수종 집사, 이종규 집사, 송은규 장로, 하서운 전도사, 정태응 장로, 심윤중 집사, 정기조 집사, 전용주 집사, 윤재룡 장로 가정이 참석하였다. 모두 1등 이므로 성적은 기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주님의 멜로디!

실버대학 1학기 종강

"교회는 지역으로, 지역은 교회로"라는 주제를 가장 잘 실현해 주는 실버대학 1학기가 종강했다. 음악과, 현대무용과, 서예과, 한글과, 장기과, 영어과, 탁구과, 종이접기과 등 8개 과정에 93분의 실버대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각종 지역 명사를 통한 특강, 수학여행과 효도잔치 등 특별행사, 각자의 희망대로 수강한 학과를 즐겁게 이수하였다. 2학기는 9월9일 개강할 예정이며,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은 물론, 이웃에 널리 알려서 교회가 이웃과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기대한다.

교회는 지역으로, 지역은 교회로 ...

아기학교 1학기 종강

교회와 지역의 아기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건강히 양육하고자 시작한 아기학교가 1학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훌륭히 마치고 종강하였다. 하서운 전도사를 중심으로 김경순 부장님과 12명의 선생님이 아기 양육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함께하여 유아 신앙이 평생 신앙의 반석이 되도록 하였다. 아기와 부모, 선생님이 소중한 체험하고 나눈 아기학교는 2010년 1학기에 모두 15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기학교의 2학기 개강은 9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루디아의 집 오픈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귀국하면 마땅히 거처할 장소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아시고 류재은, 이종순 집사님 부부가 소중한 거처를 내어주어 어려움이 해결됨은 물론, 먼 곳에서 교회 업무로 오신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이 오픈 되었다. 조상용 목사님은 사도행전 16:15 "(루디아가)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는 말씀으로 루디아의 집에 복된 역할을 다하도록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다. 사용문의는 해외선교를 담당하는 송주현집사에게 하면 된다.

안수집사회 장학금 전달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안수집사회(회장 윤종명 집사)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아온 회비를 절약하여, 7월 13일 조상용 목사님과 가양중학교(교장 김용래)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교회 리모델링으로 예배 처소로 대강당을 3개월여 제공해 주는 가양중학교는 지역사회에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우리 교회의 각종 체육대회와 축구동호회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등부 주일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가양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올 3월 부임하신 김용래 교장선생님은 안수집사님이시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

은행동에서 가양동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이전한지 30여 년이 되었다.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해짐에 따라, 현대적 공간이 미흡하여 새로운 꿈을 담아낼 교회 본당 리모델링이 실시되었다.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여에 걸쳐 진행 될 본당 리모델링으로 대예배는 가양중학교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그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 행사는 1층 예배실과 교육관을 활용하게 된다. 7월24일은 노회장님을 비롯한 노회 임원들께서 방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다. 앞으로 본당은 예배는 물론 중부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

가양중학교 대강당 예배

교회 리모델링으로 주일 2부, 3부 예배를 교회 인근의 가양중학교 대강당을 활용하여 드리게 된다. 늘 지역과 함께 하는 가양중학교의 배려로 3개월 여 기간 동안 예배장소로 활용하게 되는데, 더운 여름 냉방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음향 및 영상 시설 등도 부족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교우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학교 시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가양중학교(교장 김용래)에 감사드린다.

제 1주차장 정비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 비 오는 날이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제1주차장이 말끔히 정돈되었다. 전체 면적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주차 공간을 구획 정리하여 더 많은 차량이 혼란없이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주차장은 새신자, 외부 손님 등을 위한 자리로 우선 활용되며, 직분 맡으신 분들은 가능한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배려와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게 된다. 제1주차장 정비로, 교회의 간단한 야외행사도 원활히 치룰 수 있게 되었다.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자연학습원에서 대전중부교회 제2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주일학교에서 장년에 이르는 300여명의 교우들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련회에서 조상용 담임목사님은 촛불의 밤과 섬김의 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의 가족임을 알고 굳게 지켜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역설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2010 싱가폴,태국,몽골 단기선교

지난 8월 2일 2010 싱가폴, 태국, 몽골 단기선교팀 34명이 선교 지경의 확장을 위해 각 선교지로 출국했다. 우리교회는 해마다 싱가폴, 태국, 몽골, 중국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교회의 선교 비전을 키우며 사역을 확장해왔다. 우리 교회의 단기선교의 특징은 단기선교를 통하여 헌신된 많은 사역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하여 또 다른 헌신자들을 기대해본다.

알려드립니다!

원고 모집

"함께"지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지에 관심 있는 이웃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지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 대상: 대전중부교회 교우, 지역 이웃과 교회 관계자
- 원고대상: 신앙간증이나 상담, 문학작품, 독후감 등 제한 없음
- 제출방법: 대전중부교회 홈페이지 _ 커뮤니티 _ 문홍팀 자유게시판 또는 사무실 접수

창간호 성경퍼즐 정답

창간호에 게재 되었던 성경퍼즐 정답을 싣습니다. 성경퍼즐은 당분가 게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창간호에서 풀어 보셨던 답과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				17 이					2 디
보			18 에	스	더				르
기				라					하
3 도	4 갈	마		엘				5 아	가
	릴							기	
6 엘	리	세	7 바		8 실	버	대	학	
리			9 스	비	내			10 교	11 실
사			홀			12 헤			로
13 벳	바	14 게				15 르	호	보	암
		바		16 빌	레	본			

"진정한 하나됨" 의 시작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_ 2010.7.29(목)~31(토) / 충북자연학습원

글 · 김연경 집사(디딤돌 요한목장)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쉼과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 수련회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짙푸른 산과 높은 하늘... 해마다 '여름 수련회 무렵'에 보이는 그 풍경은 언제나 정겹다. 우리에게 쉼표를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

드디어 수련회장에 도착하여 개회예배를 드렸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가 되어 공동체성을 경험하도록 '연합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진 공동체 훈련시간에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었다. 둥글게 큰 원을 그리다가 장로님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교제하고 '대전 중부교회 파이팅'도 외쳤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무장해제(?)된 해맑은 웃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맑은 영성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물놀이 시간엔 미꾸라지 잡기와 보물찾기가 함께 있어 더욱 신이 났다. 손가락 사이로 정말 '미꾸라지 답게'(?) 스르륵 미끄러지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보물은 무얼까 궁금했는데, 치약이며 음료수, 라면이 붙어있는 냄비까지...그야말로 생필품들을 수풀 곳곳에 숨겨 두셔서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셨다. 촛불의 밤에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 등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놓고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고, 심야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이라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다.둘째날은 유치부 이정아 전도사님의 데뷔무대인 즐거운 포크댄스로 아침을 열고, 오전에는 운동회를 하였다. 파란 잔디밭에서 족구 축구 발야구... 등을 하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웃었다.이번 수련회의 컨셉인 쉼과 하나 됨에 걸맞게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시간이 있었다. 크게 내부코스와 외부코스 둘로 나뉘어 있어 가족 단위로 희망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내부 코스에는 점령게임, 가족작품 만들기, 양궁체험, 물놀이가 있었고, 외부코스에는 문경에 있는 석탄박물관(모노레일, 사극촬영장), 주변 등산, 화양계곡 산책 등이 있었다. 섬김의 밤에는 세족식이 있었다. 세족식 장면엔 마음 한 켠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다. 어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셨을까? 한없이 낮은 자세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제자들은 또 얼마나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몰랐을까? 섬김은, 사랑은, 그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번 수련회장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른 성도님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올해는 특별히 유년, 초등 , 중고등부도 같은 장소에서 수련회가 진행되어 교육부서 선생님들의 섬김이 더욱 빛났다. 수련회 기간 내내 스텝으로 애쓴 청년부원들, 전체 디렉터를 맡으신 이승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님들의 섬김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을 때까지 (마이크도 없이, '단체 사진에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의 심리상태'까지 분석하시며 목청껏 독려하셨다.^^) 열정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우리 캡틴 조상용 목사님, 목사님의 넘치는 에너지와 뜨거운 사랑, 유쾌함과 긍정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숨결 닿는 곳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다. 캠프파이어 시간, 모닥불 빛을 받으며 풍선을 들고 실컷 뛰고 노래하고, 숙소에서 밤 늦게 까지 도란도란 이어지던 이야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면 쉽게 알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수련회의 마지막 밤을 수놓았다. 셋째날 아침, 짐을 꾸려 놓고, 폐회예배로 모였다. 제목은 '하나됨의 윤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 온유, 인내, 용납, 평안'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 부족한 것 많지? 조금만 기다려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부족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장을 떠나왔다. 2010년 7월의 끝자락, 함께 쉼을 누리면서 한마음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런 교회'를 꿈꿀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 *with*

이단탐구
통일교

글 · 이승태 목사

"함께"지 본회부터는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각 집단을 개별적으로 게재한다. 글의 일관성과 독자의 가독 편의를 위해서, 이단의 활동과 영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다음과 같은 순서, 곧 명칭과 교주, 각 이단의 피해사례, 구별법, 활동상황, 문제가 되는 이단교리 등과 같이 통일을 둔다.

통일교는 한국에서 발생한 신흥 이단 중에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의 하나다. 통일교의 정식명칭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1954)에서 시작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1977)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통일교(2010)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새로 개관한 천복궁(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 교주의 이름은 문선명(1964년 개명, 본명 문용명)이고 1920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본격적 포교활동은 1954년 서울 성동구 북학동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간판을 내걸고 교단을 창립하면서 시작하였고 지금은 후계자로 막내아들 문형진(31세)을 세웠다. 통일교는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교주 문선명과 부인 한학자를 가리킴)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라고 하며 그가 주례하는 합동결혼식을 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 과거 통일교 대책연구소 소장을 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박준철 목사는 그의 책 "잃어버린 30년 빼앗긴 30년"(진리와생명사, 2002. 5. 10) 15장 1절에 그를 "재산착취범," "사악한 영혼사기꾼"이라고 하며 합동결혼식을 통해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강요하며 거액의 재산을 착취해서 자살, 이혼, 가정불화, 처철한 가난을 겪는 비극적 삶을 산다고 하고 파멸, 죽음, 생지옥과 같은 결혼생활로 묘사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에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검색하면 수많은 피해사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질문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강론을 전하며 선전한다.

1/ 하나님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2/ "참사랑"이란 무엇일까요? 3/ 인류는 어떻게 "참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4/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통일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7/ 아직도 통일교를 모르세요? 8/ 통일교 문선명 교주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책소개함 9/ "가계의 미래학 강연회" 초대하면서 행복한 미래와 평화로운 지구촌 한가족 이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소개하여 미혹하고 있다.

통일교의 교리를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성도가 통일교도에게 통일교 교리에 대해서 듣고 성경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일교의 교리를 알아 그들과 논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도 옳은 접근이 아니다. 단지 통일교 교리를 알고 통일교에 대한 경계를 갖도록 하는 목적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들의 교리는「원리강론」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보다 앞세운다. 문선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곧, 양성과 음성으로 된 피조세계의 구조로부터 하나님을 양성과 음성으로 된 '이성성상' 곧 '남성과 여성의 양성체'로 이해한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과 음양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은 영적타락과 육적타락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영적타락은 하와가 뱀으로 상징되는 천사 루시퍼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고 육적인 타락은 미성숙한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성경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성행위를 상징한다고 한다.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이를 회복시키는 의식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축복가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피가름'과 '혼음교리'가 연결된다. 곧 "문 교주의 섹스 교리와 성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절대적이다." 이 교리가 문자적으로 원리강론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타락한 더러운 피를 정하게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피의 정화를 위해서 참부모의 상징인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문선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육의 타락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육체가 살해되심으로 육적인 타락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메시아가 와서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문선명이 차지한 것이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설명하고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타락으로 사탄의 주관권하에 있던 인간이 주님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내로 복귀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탕감복귀론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시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어떤 신앙행위의 조건을 달성하여 탕감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재림론은 초림한 예수가 초림 때처럼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재림주 문선명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들의 교리는 성경을 이리저리 짜 맞추고 비유법을 주장하며 말도 되지 않게 재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with*

이승태 목사

중부교회를 사용하시는 손길과 세계를 품는 헌신

글 · 김연환 집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영원함을 빼앗기면서 인류는 끊임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홍수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스스로의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여겨왔으나, 과학문명이 최고조를 이루는 21세기에도 질병, 죽음, 재난과 재앙 그리고 전쟁이 인류를 향하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불안전하며 인류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2천 년 전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취하시고, 천국이 인류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음을 전파토록 명령하셨던 그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중부교회를 세우셨고, 중부교회를 통해서도 1980년대의 한국교회와 부흥의 물결을 함께 경험토록 하셨으며 거저 받은 피 값에 관한 거룩한 부담을 공유하는 성도들을 세워 가셨다.

1980년대에 한국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나라이면서도 여전히 미자립 지역이었고 선교의 대상 지역이었으며 국내 선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즈음 선교에 비전을 품었던 타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선교 비전에 온 몸을 던질 준비가 된 젊은 청년들을 준비하셨다.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였음에도 힘겨워하며 타협적인 불교국인 태국을 향하여 1990년 1월 김정배, 이명국 선교사 부부를 대전노회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GMS) 주관에 의하여 파송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해 10월에는 그때까지도 한명의 그리스도인이 없는 선교의 불모지 라마불교국 몽골을 향하여 천강민, 이정희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에 불을 지핀다. 선교초기에 파송된 그분들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었으며 어려움의 연속임에도 태국의 김정배 선교사는 1992년에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방콕 싼띠팝교회를, 1993년에는 캄 성도가 건축 중이던 자신의 집을 헌납하고 내곡교회가 후원하여 증축함으로 야소톤 콕짜런교회를 개척하였다. 야소톤 콕짜런교회를 개척하면서 태국인 결신자들의 우상을 처리한 것이 고발되어 싱가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몽골의 천강민 선교사는 1995년 1월 샤르하드 안디옥교회까지 3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등 기적과 같은 사역의 열매를 일구어 내었다. 그로부터 우리 교회는 해마다 다양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지역을 지원하는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우리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김정배 선교사.
2010년 3월 능파능란 – 산티팝연합수련회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갑작스럽게 평신도 선교사로 1998년 3월 이종현 선교사의 몽골 선교, 5월 박영진 선교사와 김재정 선교사의 태국 파송하는 바람이 일어났으며, 2000년에는 전임사역자인 윤명호, 최수옥 선교사 부부를 태국으로, 2004년도에는 천지인, 온누리 선교사 부부를 AX국으로 파송하기에 이른다.
태국의 김정배 선교사는 태국 76개도에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통하여 본인이 개척한 싼띠팝교회 (SCA) 등 3개 교회를 포함하여 총 12개 교회로 교세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마하너컴 교회 등 2곳을 윤명호 선교사 부부가 섬기고 있다. 몽골에는 천강민 선교사가 3번째 세운 샤르하드 안디옥 교회를 이종현 선교사가 섬기고 있으며 김정배 선교사는 현재 싱가폴에서 싱가폴 산티팝교회를 세워 태국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AX국에 파송된 천지인 선교사는 AX국의 지하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현지 사역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을 준비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순종을 사용하기 시작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20여 년 동안 지켜보고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요 사역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중부교회를 향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 주님의 손길이다. 지금까지는 불교국가와 공산국가가 선교대상 지역이었다면, 향후에는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을 향한 진화된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with*

모든 만남의 주선자 되시는 하나님!

글 · 김경희 [디딤돌 마태목장]

17개월 된 은호를 재워놓고 펜을 듭니다. 우리 똥강아지가 눈을 뜨고 있을 때 펜을 드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끝내 빼앗아 제 손이고 발에 한가득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라기 보단 뭐 그냥 한없이 긁적대는 것이지요. 2009년 1월 기쁘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 은호가 세상에 나오기 한 달 전,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전 교회를 찾아 이 곳 저 곳을 다니다가 조상용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 중부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다운 모습으로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 저의 짧은 신앙의 방황도 끝났습니다.

얼마 후, 심방이 있어 목장 인도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건 집사님의 환한 웃음과 함께 "멀리서 봤는데도 딱 우리 구역 식구 같더라니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긴장을 순식간에 녹여주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가족이란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축복의 말로 절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목장 여러 집사님과 아이들을 만났고 연령층이 비슷하고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이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또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교회 가족들로 인해 중부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은호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돌보아주시는지 중부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새신자 대접 받는 것이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봄을 받는 양이 아니라 돌보아 주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 이외에도 저는 아인이와 은호를 매개로 이선미 집사님과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은 참 편하고 즐겁습니다. 이 초보 엄마는 집사님께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닮고 싶습니다. 한없이 생각해 주고 나누어 줍니다. 다른 자녀들을 아인이 대하듯 하며 때론 아인이 보다 먼저 보살펴 줍니다. 많은 아이들의 대모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저 아래 꼭꼭 숨겨놓은 이야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전 위로를 받고 늘어놓았던 불평과 불만들은 조금씩 천천히 내 잘못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리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집사님을 통해 주찬양단을 알게 하셨고 은호를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집사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권유로 지금은 찬양단에 들어가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아주 조금은 떼어진 것 같습니다. 찬양 속의 하나님은 절 기쁘게도 하시고 평안케도 하시며 때론 떨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 신앙과 삶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만남의 주선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with*

♬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 ♪

Dear. O my love, GOD

글 · 임현아 [중등부]

안녕하세요. 하나님! 전 중등부 학생 임현아에요. 잘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정말 감사해서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그다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중등부에 들어와서 하우진 전도사님을 만나 설교를 들으니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더 깊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가 중등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선배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죠.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수련회 때 책임감 있게 잘 챙겨주고, 또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들어와 처음 만난 선생님들을 통해 믿음의 올바른 길을 배우고 갖춰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은 물론, 공과를 가르쳐 주실 때의 열정을 경험했고, 나를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어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또 하나 중등부의 소중한 만남은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아는 친구들이었지만 그 밖에 모르는 친구들을 알고 점점 친해지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의 거룩한 카리스마와 선생님들의 최선과 선배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배려로 저는 중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예전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전에 나는 왜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자라나는 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with*

2010년 어느 여름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아가

분기별1인전도.. 그럼1년에4명? "나도참여할래요!"

5월 전도왕 • 김영채 집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매일 바쁘게 무엇인가에 쫓겨서 분명한 목적지 없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지금도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유언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 목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하루 빨리 주님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려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손해 보지 않을까?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당당히 복음을 전해 보았으면 한다. 요즘 사이비종교, 이단들은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홍보하고 다니는데, 진짜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주일이면 혼자서만 살짝 교회에 왔다 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 부흥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백번 외쳐보아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전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한 사람이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10명이 1명씩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일 것이다.

전도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보람도 더 있는 일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고 불신자일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도록 예수님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경우에 대해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을 만나면 "자네는 일요일에 뭐해? 거주지는 어디야?" 라는 질문이 습관이 되었다. 일요일에 교회 안다닌 학생을 찾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내 흉내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동안 씨앗을 뿌린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한다. 혹시나 직장 생활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을까? 물론 학교 밖에서 만난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정예군사가 되도록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1년에 "분기별로 1명씩 전도하기 운동"을 펼쳐서 하루 빨리 우리 중부교회의 성도가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with*

이달의 " 전도왕 · 전도우수목장 " . . . .

3교구 김기성 장로

2교구 최수녀 권사

2교구 김영채 집사

2교구 송경호 집사

2교구 가양 10목장

2교구 남2 목장

3교구 법2 목장

"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랑을 좇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

나의 삶, 나의 신앙

글 · 김선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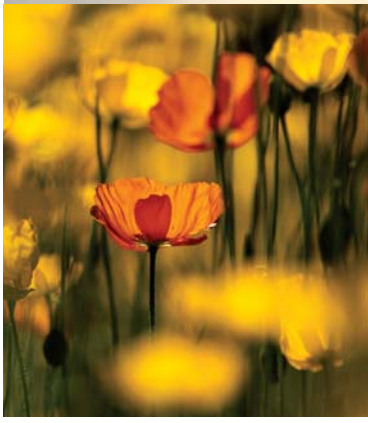
지난 시절 많은 분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나의 삶도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나, 4살 때 6.25사변을 겪으며 아버님을 여의고 무척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까이에 교회는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을 준다기에 겨우 몇 번 나가는 정도였으며, 6살 때에는 원인 모를 큰 질병을 앓았는데 당시에는 용한(?) 무당의 굿을 통해 낳았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신앙의 황무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옆집에서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무수히 전도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매번 '때가 되면 나갈 테니 당신들이나 잘 믿고 좋은데 가라'며 비웃곤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때였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어린 아들(당시 6살)이 집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중한 상황이다.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다. 오늘 밤을 넘겨야 살 수 있다.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일어나게 되었고 의사가 하는 말이 "하늘이 살렸다"라고 말 할 정도로 그 후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을 그때 이후로 믿기 시작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머리가 무척 아파 병원과 약에 의지하여 2년 정도 고생하던 중, 기도 가운데 "너는 너의 집은 쓸고 닦으면서, 나의 집인 교회는 쓸고 닦아 보았느냐?"는 성령님의 말씀에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머리도 깨끗이 낳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무수히 많은 기도응답,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일들을 어찌 다 지면에 옮겨 적을 수 있겠습니까?



총동원 때만 1년에 한두 번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던 남편을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남편이 이제는 교회의 어엿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가족이 하나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 남편, 결혼문제로 걱정이었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된 아들,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아 잘 키우고 있는 사역자의 사모가 된 딸까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모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많은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응석을 부릴 때도 많았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그 때마다 다시 일어나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이 차면 어김없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언제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8:2)*

전에는 기도응답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으나, 이제는 기도응답이라는 선물을 전해주시는 "아버지" 그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아빠,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with*

가정을 말하다 편견

글 · 김혜경 사모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생각의 틀로 상대 배우자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부정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자신의 '생각의 틀'속에 상대방을 넣게 되면 서로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핸드폰을 걸었는데, 남편이 계속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핸드폰을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가? 대체 뭘 하느라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마 또 회사 직원들과 술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전화벨 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라고 아내는 자신이 만든 생각의 틀 속에서 남편의 전화 받지 않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화가 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특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편견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즉 편견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한다. 그리고는 그 생각에 자신의 편견을 적용시켜서 부정적인 해석을 해버린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 한결같이 편견에 치우쳐 있는데, 우울한 사람일수록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해로운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엄마로써 실패한 여자야.'라고 생각을 한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신경이 과민한 남편은 아내가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내에게 자동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혹은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하고 걱정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신체적 감각을 가지고도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해석한다. 예를 들어 약간 어지러워도 뇌에 종양이 생긴 것은 아닌가, 혹은 가슴이 조금 아파도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론에 무게를 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정보는 무시해 버린다. 역설적인 일이지만 자신의 편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사고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른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제를 가진 부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

행복한 결혼은 즐거운 경험이 많으냐에 있기보다 불쾌한 경험이 적은 것에 있다.
행복이란 부정적인 경험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부정적인 경험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상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더욱 더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들어가 본 것처럼, 자신이 내린 생각의 결론을 확신한다.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연애할 때나, 신혼초기에는 긍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지만, 그러나 결혼생활을 통해 부딪히는 어려움, 실망, 말다툼, 좌절을 경험하다보면 마음이 바뀐다. 즉 긍정적인 편견에서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뀐다. 행복한 결혼은 즐거운 경험이 많으냐에 있기보다 불쾌한 경험이 적은 것에 있다. 행복이란 부정적인 경험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부정적인 경험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부부가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부정적인 생각을 알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변화시킬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오늘 밤 남편이 늦게 퇴근을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넘쳐날 것이다. *with*

— 아론 백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참조

스마트폰과 교회

글 · 임완재 목사(고등부)

한국에서 전 세대를 통틀어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월드컵을 예상하셨다면 틀리셨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은 스마트폰입니다. 전 세계인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마트 폰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2~59세의 이동전화 이용률 중 스마트폰 사용률이 13.3%입니다. 이중에서 20대가 26%이고 12세에서 19세의 이용률이 18.4%입니다. 전체 사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10대 청소년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이유를 들기 전 스마트 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스마트 폰은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 PDA)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 기능에 일정관리, 팩스 송 · 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폰과는 달리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선 인터넷을 무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일정관리를 할 수 있으며, 트위터를 할 수 있고, 메일 관리가 되고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p3와 동영상 보기 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10대들이 더욱 가지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내려받고 다시 휴대용 기기에 옮기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학습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실행할 수 있고 특히 영어공부를 할 때는 프로그램 하나로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으며,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스마트 폰에 대한 소유욕을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의 이런 장점들이 지금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편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간파해서 만들어 낸 작품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 폰을 지금과 같은 위치로 만든 것이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바로 고객의 소리였습니다. 고객이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조사해서 그것을 제품에 반영을 한 것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것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 만든 것이 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고객들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시간이 길다는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의견을 채택해서 거울을 달았더니 불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동시간은 같은데 말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만들었기에 갈수록 편리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대로 만드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스마트 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이런 고객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일학교 부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편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며 변화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곳이라고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에 선포되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고치거나 음향을 좋게 하거나 영상을 좋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더욱 집중하며 예배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찬양에 더욱 집중을 합니다. 예배는 없고 찬양만 있습니다. 복음은 없고 음악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마트 폰의 장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겠지만 본질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해도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양보하지 않는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순종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with*

임완재 목사님은 수원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한 분으로 충남대를 거쳐 총신대 신대원을 2007년 졸업하셨고, 현재는 우리 교회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제주도 처녀 박수미 사모님과 2009년 12월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이 가득하신 목사님은 해외선교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사모의 글

사모로서 이글을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많은 만남 중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분을 만남으로 저의 인생과 삶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으로 어디로 가야 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두려워하며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 1때 나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그런 고민들과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감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남편과의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 선 · 미 사모

대학에서 종교음악과 재학시절 정오찬양선교단에서 이상현 목사님을 만났다. 부산사직제일교회에 다니시던 중, 졸업 후 결혼하여 목사님과 울산남부교회를 함께 다니셨으며, 자녀로는 이요한(중1), 이예인(4세)을 두고 있다.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매주 2회 김해를 방문하여 활동하는 열정이 있으신 이선미 사모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찬양사역을 통해 어렵거나 찬양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임을 되돌리고 싶으신 소망이 있으시다.

"순간순간 만나는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때
그 만남들이 이어져서 의미있는 만남들이 되고 그 의미있는
만남들이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들이 되는것 같습니다."

내 앞서 항상 그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계시며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에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지만 남편을 사랑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함께 동역자로 배우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사는 동안 저의 삶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모로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과 아픔들이 나의 삶을 엄습할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만 보라보라고…".

세 번째의 만남은 성도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인 저에게는 많은 성도들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되므로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겐 많은 배움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저에겐 큰 도전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모인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인 제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와의 만남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만남이 없듯이 또한 내가 계획한 만남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만나는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만남들이 이어져서 의미있는 만남들이 되고 그 의미있는 만남들이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부교회에서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 사모인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모가 되길 기대하게 됩니다. *with*

새로 부임하신 분들

하서운전도사 (3교구)

지난 2년 6개월 간 우리 교회 유치부 사역을 담당했던 하서운 전도사가 3교구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현재 남편 강병철 집사(한밭제일교회)와 1남 2녀를 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하서운 전도사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중부교회 유치부 '경배와 찬양'과 '드림워십팀'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이정아전도사 (유치부)

유치부 교육 전도사로 새로 부임한 이정아 전도사는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와 유아교육과를 복수 전공하여 이번 8월에 졸업하는 졸업생이다. 학교는 침례교 학교를 다녔지만 중부선교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대전중앙장로교회 초등부에서 찬양과 워십으로 섬기며 사역하다가 중부교회로 오게 되었다.

전혜경사무간사

법학과 특허법을 복수 전공한 전혜경 간사는 특허청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신앙을 견고히 하던 중 행정 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시편 73:28)는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 특히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관리 집사로 부임한 김현철 집사는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자영업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고, 교회 관리직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던 중 때마침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대전 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다. 가족으로 아내 조경희 집사와 사랑스런 두 딸 희주(5세), 민주(3세)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삶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김현철관리집사

문홍팀 새얼굴 웃음소리

윤여승집사

3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온 사진에 대한 나의 열정이 교회 회지 '함께'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린다. 언제든 어디든 누구든 필요로 하는 곳엔 틀림없이 나타나리라. 나의 렌즈가!

배영미집사

'함께'를 읽던 독자에서, 취재를 통해 글을 쓰고, 사연을 전하는 기자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함께'에 발을 담갔으니 이젠 살 빠지게 뛰어보려구요. 성도님들! 앞으로 제 부탁엔 무조건 오케이 해 주세요~!

내솜씨, 우리가족

강희(7세)는 평소 수줍음이 많지만 유치부 '경배와 찬양' 팀원으로 무대에 설 때면 귀엽고 열정적인 율동을 선보이기도 하는 유치부의 귀염둥이로, 아빠 조성일 집사(디딤돌 회계)와 엄마 유은정 집사(마태 목장 목자), 귀여운 남동생 건희(4세)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며 또 내년 초 만날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 송촌동에서 입시학원(하이스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일 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할머니 이은순 명예권사님을 모시고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with

그림 · 조강희(유치부)

열정과 배움이 있는

실버대학 2학기 모집안내

대상 _ 65세 이상 남녀 건강한 지역주민 및 중부교회 교우
개강 _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_ 대전중부교회 비전홀 (교육관 2층)
수업시간 _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입학금 _ 1인 10,000원(4년)
매주특강 _ 건강강좌, 아름다운 인간관계, 명사초청 강의 등
행사 _ 생일잔치, 수학여행, 학습발표회 등
선택과목 _ 음악과, 우리춤체조과, 서예과, 한글과, 장기과, 영어과, 탁구과. 종이접기과 (총 8과목)
수강신청 _ 8월 15일 ~ 29일까지
문의 _ 대전중부교회 사무실 (전혜경 간사 : 622-9991)

아기와 함께, 꿈을 함께

아기학교 2학기 모집안내

대상 _ 48개월 이하 아기와 엄마가 함께
개강 _ 9월 9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_ 대전중부교회 교육관 2층 미션홀
수업시간 _ 9월 9일 ~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 ~ 12시)
입학금 _ 6만원(간식,교육재료,활동자료,야외나들이,입학,졸업선물)
수강신청 _ 8월 25일 ~ 9월 5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문의 _ 010-9909-7673 (담당 하서운전도사) , 622-9991 (중부교회사무실)